**교제와 나눔**

**\*\*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\*\***

**ㆍ재정구조조정을 위한 임시제직회:** 오늘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

**ㆍBible12(성경개관) 3강:** 다음 주일 예배 및 오찬 후 Teestube

**ㆍ아빠의 küche:** 다음주일 애찬은 형제 교우들이 전적으로 담당합니다.

**ㆍ자치단체 총회:** 11월 중 각 단체들은 총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.

**ㆍ지난 주 방문:** 이성혜

**ㆍ입원:** 황선우(Evangelisches Krankenhaus Düsseldorf 311호)

**ㆍ생일:** 김영희, 오경민, 신재용, 구쳉

**ㆍ손교훈 목사:** 유럽예장총회 및 목회자수련회 참석(11/4-8, 리스본)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일/시135:1-21 월/시136:1-15 화/시136:16-26 수/시137:1-9

목/시138:1-8 금/시139:1-12 토/시139:13-24 일/시140:1-13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67독, 정기승 장로 1독)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11월 3일** | **11월 10일** | **11월 17일** | **11월 24일** |
| **예배기도** | 이미전 | 단주현 | 강일구 | 백능현 |
| **말씀일기** | 오지훈 | 손재호 | 석호선 | 박상훈 |
| **안내위원** | 정기승, 예배부 |
| **헌금위원** | 민명희, 박성호 |
| **애찬봉사** | 밥상 넷 | 밥상 다섯 | 나라주일 | 밥상 여섯 |

**36-45호 2019년 11월 3일**



**“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”** (요14:27)

주일예배: 12:00 Fliedner Saal

유초등부예배: 12:00 Teestube

청소년부예배: 12:00 Teestube

토요기도회: 07:00 Teestube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

**담임/ 손교훈 목사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교육/ 신동철 목사** HP. +41-77-816 5678

**교육/ 김요한 목사** HP. 0163-139 2225

**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**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8일 창립 **뒤셀도르프선교교회**

 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 **교회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****üsseldorf**

 **주 일 예 배**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
| --- | --- |
| ※입례송/Eingangslied …...……… 왕이신 나의 하나님 ………..……※예배부름/Eingangsgebet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함께인도자 |
| ※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22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… | 다함께 |
| ※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……………….. 교독문 60번 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526장 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.…… | 다함께 |
| 기도/Gebet ………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말씀일기/Bibeltagebuch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찬양/Cho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이미전 집사오지훈 교우찬 양 대  |
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...…………… 요5:1-18 …..…....………………… | 인 도 자 |
| .설교/Predigt ……………… **우리 시대의 베데스다** …..…………… | 손교훈 목사 |
| 찬송/Gemeindelied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531장 …………………….…………합심기도/Gebet ……........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.봉헌/Kollekte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| 다 함 께다 함 께다 함 께 |
| 교제/Bekanntmachung ……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…………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주기도송/vaterunser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 | 다함께 |
| ※축도/Segen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...................... | 손교훈 목사 |
|  |  |

**※는 함께 일어섭니다.**

◀ **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시편 129편 ‘진짜 무서운 이’** ▶

“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

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”(2).

제일 무서운 권투 선수는 펀치가 센 사람이 아니라,

그 펀치를 그렇게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다.

수 차례 쓰러지고도 번번히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.

진짜 무서운 사람은 총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,

거듭 괴롭힘을 당해도 그 고통과 위협 앞에서

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다.

악은 힘이 세다.

그러나 그 힘으로 결코 이기지는 못한다.

당장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스러져 간다.

“지붕의 풀”(6)처럼, 허공에 뿌리를 두고 있어

결국엔 그 뿌리부터 메말라 간다.

예수님의 십자가는

그 뿌리를 땅에 두고 있어,

땅의 사람들에게 두고 있어,

결코 흔들리지 않는다.

거기 보혈의 생수는 언제나 흐르고,

실컷 괴롭히긴 했어도 결코 이겨 본 적 없는 마귀는

진짜 무서운 분이 누구신지 알기는 알아,

오늘도 그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다.

“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. 주의 피 믿으오.

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”